



성전파성 질환의 예방  
(Prevention of STD)

이충범  
가톨릭의대



## 성전파성 질환의 예방 (Prevention of STD)

이 총법  
가톨릭의대

성전파 질환은 세계적으로 공중보건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성행위로 전파되는 질환으로는 매독, 임질, B형간염 그리고 HIV등 20여종에 이르고 그 심각성도 다양하다. 성전파 질환은 성인뿐만 아니라 신생아에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비특정 집단에서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방이 중요시되고 있다. 성전파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로는 인종, 지역, 산업화, 교육 수준 그리고 성문화 등 매우 다양하여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고 보건적 측면은 물론이고 사회문화적으로 건전한 도덕성과 함께 지속적인 성교육이 요구된다.

임상적으로 성전파 질환예방의 다섯가지 주된 개념은 첫째, 위험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교육하고 둘째, 무증상의 감염된 환자와 증상이 있으나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를 찾아내고 셋째, 감염된 환자의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 넷째, 감염환자의 성상대에 대한 평가, 치료 및 상담, 그리고 다섯째,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에 노출된 고위험군에 대한 노출전 백신 등이다.

성전파 질환 예방을 위한 비특이적 방법으로는 콘돔, 여성용콘돔, 콘돔과 살정제, 스폰지 및 다이어 프라금, 비차단식 피임법, 불임수술 및 자궁절제술 등이 있다.

이중에서 콘돔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HIV, C형감염 등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다. 첫째, 매번 새로운 콘돔을 사용해야 하고 둘째, 찢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루고 셋째, 충분히 말기된 후 씌우고 넷째, 콘돔 끝에 공기가 없도록 한다. 다섯째 적절한 윤활제가 유지되게 하고 여섯째,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해야 한다. 일곱째, 성행위 중단시 콘돔내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해야한다. 여성용 콘돔은 HIV를 포함한 여러 감염을 예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연구는 없으며, 남자가 콘돔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콘돔에 살정제를 포함한 윤활제가 대장균에 의한 질의 감염을 줄인다는 보고가 있어 살정제를 첨가하는 것이 추천될 뿐이다. 스폰지와 다이어프라금은 HIV의 감염을 방어하지 못하고 남자의 성병에는 연구된 것이 아직까지 없다.

비차단식 피임법, 불임수술 및 자궁적출술 역시 임신의 기능을 벗어날 수 있으나 성전파 질환의 예

방에는 적절치 못하다. 그 외에도 성교후 질세척 및 배뇨 등의 방법이 있으나 효과적이지 못하다.

백신은 면역요법으로 예방뿐 아니라 치료에도 추천되는 이상적인 방법으로 기대된다. 매독, 연성하감, 임질, 클라미디아 그리고 단순포진 등에 백신을 응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가까운 장래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부, 청소년, 어린이는 일반 성인과 달리 태아에 전파될 수 있거나 성적 지식의 부족으로 위험성이나 심각성을 알지 못하므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성전과 질환의 예방은 성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현실적이지 않고 어떠한 예방법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